

“감독은 결국 고향 짝어 팔아먹는 사람이죠”



100번째 영화 '천년학' 만든 장성 출신 임권택 감독

노감독은 강행군 중이었다. 10년간 끊었던 담배를 다시 피울 정도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100번째 영화 '천년학' 개봉을 앞두고 임권택 감독(71)은 하루 4~5개의 인터뷰 일정을 소화해내고 있었다.

지난 10일 장흥시사회를 위해 새벽길을 달리는 임권택 감독은 감기 몸살에 걸린 탓에 입주변은 쥐어 있었고 인터뷰 내내 잔기침이 끊이지 않았다.

“조심 조심들 가거라~임” 무대 인사 후 먼저 서울로 떠나는 오정해 등 여배우들을 보내는 노감독은 영락없이 친정에 다녀온 딸을 배웅하는 아버지의 모습이기도 했다.

임감독은 자타가 인정하는 늘변(禿辨)이다. 녹음된 인터뷰 내용을 글로 풀어내는 동안 한 차례도 중지 버튼과 되감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느릿하고 어눌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평생을 영화에 바쳐온 한 영화감독의 가슴 따뜻한 진심이 있었다.

- 인터뷰 스케줄을 잡기가 무척 어렵던데 '100번째 영화'라는 데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 아이고 이렇게 힘들줄 몰랐어요. 100번째라고 해서 갑자기 실력이 늘어 전혀 못보던 작품이 나오는 것도 아닐텐데, 기대들은 많고, 1960년대엔 10년 동안 50편을 찍기도 했어요. 100편이라고들 하는데 그때 작품들은 좀 장파하고 그러네요. 솔직히 내가 찍은 영화도 기억을 못해요. 인젠가 TV를 보는데 60년대 액션 영화를 해주는 거라, 한참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것도 같고, 어디선가 한번 본 것도 같고 그러더라고. 근데 내 영화였던 거지.

- 100번째 영화라 중압감이 크셨을 텐데,

과 술도 좀 드시고 그러셨어요.

▲ 그게 영화계에서는 없었던 일이에요. 내가 후배들로부터 이렇게 대우를 받을만한 일을 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상을 받은 것보다도 가장 마음 안에서 기쁘고 그러대요. 젊은 시절에는 영화감독보다는 '술꾼'으로 더 유명했지. 근데 지금은 많이 못 마셔요.

- 행사 때 사모님(영화배우 채령)을 만난 건로도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다고 하셨는데 미모의 여배우를 사로잡은 비결이 뭐가요.

▲ 처음에는 로또 복권인 줄 몰랐죠. 근데 내가 가정사에 신경 쓰지 않고 수십년을 살아왔다고 생각하니 아닌 게 아니라 로또도 맞았던 생각이 듭니다. 난 말로 꼬신 일은 없



임권택 감독은

- ▲ 1936년 5월 2일 장성 출생
- ▲ 광주송일중
- ▲ 1962년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
- ▲ 대한민국예술회원
- ▲ 주요작품 = '만다라'(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 '길소뜸'(베를린 영화제 경쟁부문), '씨받이'(베스스영화제 여우주연상)

상 강수연, '아디다'(몬트리올영화제 여우주연상 신혜수), '아제 아제 바라아제'(모스크바영화제 여우주연상 강수연), '서편제'(상하이영화제 감독상 및 여우주연상 오정해), '춘향전'(칸영화제 경쟁부문), '취화선'(칸영화제 감독상), '장군의 아들', '티켓', '하류인생' 등

▲ 호암상 예술상, 만해대상, 베를린영화제 명예황금곰상, 자랑스런 전남인상

선생이 소리를 많이 해주셨죠. 이렇게 좋은 소리가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아쉬움도 있었고, 그래서 '서편제' 같은 영화도 하게 된 거죠.

- 감독님은 특히 아름다운 남도 풍광을 영화에 많이 담으셨습니까. 감독님께 '남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 감독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성장한 곳에 정이 많이 가요. 우리 세대는 더 그렇겠지. 고향의 풍광과 체험들이 영화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결국 감독은 고향을 짝어 팔아먹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남도 산은 험하지 않고 순하고 인자해요. 또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손이 덜 타고 보존이 잘 돼 있어 앵글을 어디에 대도 한쪽의 한국화 같은 화면이 나오죠.

- 당시는 영화라는 게 지금처럼 대중화된 장르는 아닌데 어떻게 감독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 장성 촌놈이라 영화를 볼 만한 도시쪽과는 전혀 인연도 없었고 영화감독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죠. 부산 피난 시절 노동관에서 일을 하며 알게된 분이 서울로 올라가

'취화선' 같은 작품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 '천년학'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영화라 할 수 있는데 젊은 친구들이 '천년학'을 이렇게 봐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신가요.

▲ 난 '서편제'를 만들 때도 젊은 세대는 별로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결과를 얻었어요. '서편제' 때는 판소리가 갖는 감흥과 맛을 어떻게 관객들에게 빠르게 전달하도록 하느냐가 과제였죠. '천년학'에서는 드러내 놓고 사랑하지 못하는 오누이의 사랑을 판소리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어요. 슬픈 사랑 이야기와 판소리가 서로 어우러지면서 서곡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젊은 이들이 이 영화를 통해 우리 민족의 멋스러움과 풍류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 조만간 '천년학'의 칸영화제 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요.

▲ '서편제' 후 나를 성원해 주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외국에 가서 성과가 있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짐이 없죠. 큰 짐, 상을 받으려면 짐

광주서 소리꾼 소리 접하고 열 빠져 고향 풍광·체험 자연스럽게 묻어나 난 영화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어



영화 '장화홍련전'을 찍게 됐는데 심부름 할 사람이 필요하대요. 직장도 없을 때니 밥을 먹여 주겠다고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이런 감독은 없을 거야. 난 꿈을 가지고 영화계에 온 게 아니거든. 먹고 살 길이 없었고, 운이 좋았고, 재수가 좋았죠. 다행히 약간이나마 소집은 있었던 것 같고.

- 장흥 출신 작가들의 소설을 여럿 영화로 만드셨습니까.

▲ 한승원 작가와 '불의 딸' '아제아제 바라아제', 이정준 작가와 '서편제' '축제' '천년학'을 했죠. 소설이 픽션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삶에 대한 깊은 천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한 작가가 많아요. 하지만 두 분의 소설은 다르죠. 오늘 시사회장에 오신 한선생 내외가 올해 바지락이 통통하게 살이 오를 때 보내주셔서 맛있게 먹었어요.

- 가장 마음에 남는 영화는 어떤건가요.

▲ 난 개봉하고 나면 다시는 영화를 안봐요. 보고 싶으면 왜 저 모양으로 찍었을까 알았을 때 안봐요. 내가 내 작품중에서 고르긴 뭐하고 객관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작품들이 나름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만다라' '길소뜸' '씨받이' '장군의 아들' '춘향전'

즐거분하게 벗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때. 상을 받고, 아 이제는 나도 좀 자유로워지나 보다 했는데 자유롭기는 커녕, 아이고.(웃음) 이번에도 갈 수 있으면 감사하죠.

- 우리나라 아버지들은 자신의 직업을 물려주는 걸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데 이드님들은 둘 다 영화쪽 일을 합니다.

▲ 처음엔 반대했죠. 내가 여기까지 이 세월을 영화를 해오면서 살아낸 것 생각하면 엄청난 끈기와 참성품과 노력의 결과인데, 아들한테 그런 근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작으에는 연기가 잘 된다고 하고, 큰놈은 제작부로 들어가 영화를 찍고 있어요.

- 100번째 영화 이후를 생각해 보셨나요.

▲ 난 늘 부담스럽고 그런 세월을 살았어요. 특히 100번째 영화라고 이렇게들 관심을 가지니 더 부담스러웠죠. 난 영화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기회가 주어지면 당연히 영화는 찍겠죠. 이제부터 나도 좀 자유롭고, 훗날 부담을 다 털고, 그런 영화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담배 다시 피울 정도로 우여곡절 100번째라 기대는 많고... 좀 창피 멜로영화라 "젊은이도 좋아할 것"

한때 투자 포기로 촬영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 마음 고생이 심하셨습니다.

▲ 그런 경험은 처음이어서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제작자를 비롯, 여러분들 도움 받으며 행복하게 촬영했어요. 연기자들도 자기 몫을 잘해내고 스태프들도 완성도를 높이고 더 노력했던 것 같구요. 감독은 자기 작품에 만족은 없죠. 항상 덜 채워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작품은 그래도 많이 채워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후배들이 헌정 행사를 마련했었죠. 당시 기분이 어떠셨어요. 뒷풀이 자리에서 후배들

요. 그냥, 뭐 자연스레 좋아졌던거죠. 말로 꼬시기로 들면 나는 안될 사람이지. 보시다 시피 말투변이 없어요.(웃음)

- 감독님 작품에서는 판소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 첫 작품 '두만강아 잘 있거라'를 찍고 난 후였죠. 광주의 흥행사 한분이 "자네 때문에 돈 벌었으니 술한잔 하세"하며 기생집에 데리고 갔어요. 딱 단들이 들어갔는데 아쟁 등 악기 연주와 함께 소리꾼의 소리를 듣고 내가 열이 빠졌어요. 초창기 사극에서 김소희

주식회사 보원조명

생활속의 아름다움 이제 주식회사 보원조명이 열어줍니다.
주식회사 보원조명이 더욱 새로워 집니다.

최첨단 디자인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새천년을 맞이하여 보다 앞서가고 미래지향적인 조명기구 생산을 위하여 실용적인 디자인, 엄선된 고급소재, 완벽한 제작,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고 정확한 사후관리를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해 온, 저희 보원조명은 오늘도 보이지않는 곳에서, 최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고객님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원조명의, 모든 활동상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생동감있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신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여 고객에 함께하시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 중 옥

株式會社 寶元照明
BOWON LIGHTING CO., LTD

본사및공장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51번지 / TEL : 02)2671-6465(대) FAX : 02)2632-6556/H·P : 011-257-5590/홈페이지:http://www.bowonlight.co.kr
전 사 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33-1 / TEL : 031)701-3322(대) E-mail:bowon@bowonlight.co.kr